

第3回 全國 새마을 技術指導 事例

全州 發表會 盛了

새마을운동 成果舉揚에 寄與

尹淳奇 · 陸昌洙 · 진갑득 · 양윤모 교수 受賞

第3回 전국 새마을 技術指導事例發表會가 8월 25일 全州商工會議所 講堂에서 安京模 새마을봉사단중앙회부회장, 黃寅性 全北知事, 金基衡議員, 金澄基科學技術處振興局長을 비롯한 새마을기술봉사단 각도단장, 각부처관계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등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實施되었다.

同봉사단중앙회(會長 閔寬植)가 主管하고 全羅北道와 全北새마을기술봉사단(단장 徐廷祥)이 共同 主催한 이날 발표회에서는 새마을기술봉사단의 技術支援活動과 技術指導方法에 대한 여러 가지 事例發表와 評價가 있었으며 우수 사례를 발표한 전북, 충북, 경북, 경남 등 4個道の 지도교수에 대한 施賞이 있었다.

이날 徐廷祥 全北道團長은 開會辭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중화학공업발전과 함께 國力培養이라는 눈부신 產業發展을 이룩한 礎石이 되어왔다」고 전제하고 농촌근대화의 지름길을 다져온 새마을기술봉사활동의 사례발표가 내일의 巨步를 위한 큰 힘을 축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閔寬植中央會會長은 激勵辭를 통해(安京模中央會副會長 代讀) 새마을운동으로 눈부신 산업발전과 고도성장을 이룩해왔으나 계속 國力伸張을 이룩해나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科學技術의 要求度는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사명에 부응하여 72년 발족한 과학기술자로 구성된 새마을기술봉사

단은 營農의 科學化와 生活의 科學化를 위해 技術指導活動을 펴왔다」고 봉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계속적인 기술지도 활동을 전개 活性化시켜, 農漁村現地의 기술애로 사항의 타개는 물론 새로운 기술의 확산 보급 및 이미 실시한 새마을사업중 실패 사례에 대한 脆弱技術의 開發支援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方針」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이 발표회를 통해 과학기술자와 새마을 관계자간의 대화의 광장이 되어 새마을 운동의 成果舉揚에 도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金德永 內務部 새마을기획과장의 「저소득마을대책」이라는 特講과 9個道の 技術指導事例가 發表되었다.

技術指導 發表 事例內容

- ▲ 담리작 호맥재배를 통한 農家의 所得增大 (京畿)
- ▲ 화전마을을 고등채소재배마을로 육성(江原)
- ▲ 아연결핍담에서 획기적인 증산이뤄(忠北)
- ▲ 落後마을을 승차마을로 育成(忠南)
- ▲ 찌감자 生産團地로 開發된 산간오지마을 (全北)
- ▲ 都市周邊 農村의 갈길(全南)
- ▲ 藥草特産團地로 변한 兩班村(慶北)
- ▲ 環境改善과 새마을 技術指導(慶南)
- ▲ 理想農村의 實現을 위하여(濟州)